

나주 남평초 학부모회, '아버지와 함께하는 캠핑나라' 운영

가족 캠프 통한 가족의 감성·공동체 역량 증진 위해 마련 본교 희망가정 15가정 학생·학부모 대상, 프로그램 운영

남평초등학교는 지난 19일 학부모회 주관의 가족 캠프를 통한 가족의 감성 및 공동체 역량 증진을 위해 본교 희망가정 15가정의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아버지와 함께하는 캠핑나라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남평초 학부모회가 주관한 '아버지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은 아이들과 아버지의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여 따뜻한 정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캠핑나라 프로그램은

먼저 본교 운동장에서 안전교육 및 프로그램 안내의 시간을 갖고 가족 단위로 텐트를 설치하여 가족 휴식 및 식사, 대화의 장소를 만들었다. 본교 체육관에서 운영된 '테크레이션' 강사와 함께하는 가족 사랑 오락관'활동은 다양한 게임을 통해 스트레스를 광광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며 체육관은 부모님과 아이들의 행복한 웃음소리로 가득 채워졌다. 이어진 '나도 요리사!'활동에선 학부모회

에서 준비한 돼지고기와 가정에서 준비한 다양한 식재료로 가족과 함께 음식을 만들고 맛있게 먹으며 가족 친교 시간을 통해 가족 간의 화목을 도모하고 긴밀히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한 남평초 정00 학생(3학년)은 "아빠와 학교 운동장에서 캠핑을 하니 즐거웠다."며 "맛있는 음식도 먹고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학부모 정00은 "가족들과 웃고 즐기며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아이에게 평생 기억될 추억을 쌓을 수 있어서 기쁘다."는 소감을 전했다.

배정옥 교장은 "아버지와 함께하는 캠핑나라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존중과 사회와 협력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나주=송준표기자

고흥평생교육관, '심폐소생술·응급처치' 교육



고흥평생교육관은 지난 21일 4층 소강당에서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응급사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정지 상황에서 심폐소생술 방법을 배

워 신속한 인명구조 활동을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마련했다. 특히 자동심장충격기 점검 및 사용방법, 심폐소생술 시 행동요령 등 실생활에 필요한 응급처치 방법에 대한 강의와 실습을 병행했다. 교육관 관장은 "지역특성상 고령자 비율이 높아 응급상황 시 신속한 인명구조에 효과적인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방법 등을 꾸준히 교육해서 비상 상황시 직원들의 응급대처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흥=기동취재본부

광양동초, 임실치즈로 떠나는 현장체험학습

광양동초등학교는 최근 전교생이 대한민국 치즈의 발상지인 임실치즈테마파크(이하 테마파크)로 현장체험학습을 다녀왔다. 테마파크에 도착한 학생들은 임실치즈테마파크 성 앞에 조성된 중앙정원을 보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 가을빛으로 아름답게 물들어 있는 나무가 있었고, 떨어져 가는 낙엽을 밟아 보면서 사진도 찍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체험관에서는 깨끗한 원유로 치즈가 만들어지는 전 과정을 쉽게 배우고 코티즈 치즈와 모짜렐라 치즈, 임실치즈를 활용한 쌀피자까지 직접 만들어 보았다. 점심으로는 수제 치즈 돈까스를 맛있게 먹으면서 치즈를 활용한 요리가 다양함을 배웠다. 또 파크관, 치즈관 등 주변 경관을 즐겼고, 유가축장에서 동물과 교감을 나누는 등 다양한 체험을 하고 치즈테마파



크 곳곳을 누비면서 늦가을의 정취를 마음껏 느꼈다. 현장학습에 참여한 5학년 학생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마음껏 다닐 수가 없었는데, 이렇게 함께 현장학습을 나오니 너무 좋아요. 사진도 예쁘게 찍고, 치즈도 직접 만들어 보니 기억에 남는 하루가 될 것 같아요"라고 소감을 말했다. 광양=김현근기자

영광교육청, 다문화 예술동아리 '락(樂)뮤(Musical)' 공연

제8회 정기공연 '여순항쟁-메멘토' 성료



영광교육지원청은 지난 22일 천년의 빛 영광 다문화 학생 예술동아리 '락뮤'의 제8회 정기공연 '여순항쟁-메멘토'를 성황리에 마쳤다. 영광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열린 '락뮤'공

연은 2015년부터 다문화가정 학생들과 일반학생들이 호흡을 맞춰 뮤지컬 연습을 하며 서로가 다르지 않고 모두가 함께 서로 도우면서 자신의 꿈과 재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다문화

예술동아리로 매년 열리고 있다. 특별히 2022년 제8회 정기공연은 전남지역에서 발생한 여순항쟁을 공연함으로써 아픈 역사를 가슴속에 새겨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공연을 준비하였다. '여순항쟁-메멘토'는 1948년 10월 19일에 당시 여수시에 주둔하고 있던 군인들이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발생한 사건으로 전남 동부 지역의 많은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의 작품이다. '락뮤'동아리는 밴드부와 뮤지컬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MR반주를 사용하는 기존의 뮤지컬과는 다르게 라이브 연주에 맞춰 공연해오고 있다. 영광=서희권기자

무안교육청, '무안 어울림 오케스트라 나눔의 날' 성과발표회

장애학생·가족·교사로 구성된 오케스트라

무안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지난 22일, 무안종합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에서 '2022. 무안 어울림 오케스트라 나눔의 날 성과발표회'를 운영하였다. 장애학생, 가족, 교사로 대상으로 구성된 무안 어울림 오케스트라는 무안군, 전라남도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단원들의 문화·예술적 경험을 향유할 수 있는 교육활동을 운영하여 장애학생의 음악적 꿈과 끼, 문화·예술적 감수성을 키우고 있다.

2022. 무안 어울림 오케스트라 나눔의 날 성과발표회에서는 Pomp and Circumstance Marches(위풍당당 행진곡) 외 7곡의 연주를 선보여 그동안 갈고 닦은 음악적 기량을 발산하였다. 나눔의 날 성과발표회에 참여한 무안고 안○빈 학생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동안 연습한 곡들을 들려드려서 매우 보람차고 기쁘다"고 말했다. 김선치 교육장은 "오늘 나눔의 날 성과발표회는 무안 어울림 오케스트라단의 그동안의



연습의 땀방울이 모여 만들어진 빛나는 결과다. 오늘 보여준 공연은 모두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다"고 전했다. 무안=이기성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